

일주문

설날 맞이 자비나눔 실천
BBS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은 설날을 앞두고 1월 23일 서울 남현동주민센터가 추천한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8명에게 20kg 쌀 28포대를 전달했다.

민주본 1차 정기강좌 '통일대박'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지홍 스님은 2월 12일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민주본 1차 정기강좌 '남의 통일대박, 북의 중대제안'을 개최한다.

행복나눔 한마당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관장 화평 스님은 2월 3일부터 7일까지 광진구 일대에서 설맞이 명절행사 '행복나눔 한마당'을 진행한다.

대전파리미타 회장 추대
대전파리미타청소년협회는 1월 27일 대전 태화장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일 스님을 추대했다. 임기는 4년이다.

정토수련원 21기 백일출가
정토수련원장 유수 스님은 2월 24~6월 3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 '21기 백일출가'를 진행한다.

교수불자연합회 성지순례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불자교수 30여명과 룸비니 등 인도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
동국대 한의학과 4학년 한예지 학생은 1월 28일 실시된 제69회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다.

삼보회 7대 이사장에 박호석 법사

1960년대에 덕산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삼보회는 1월 26일 정릉 삼보정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이사장으로 성립 박호석 법사를 선임했다.

박 신임 이사장은 농협대학교 교수(농공학 전공)로 퇴임한 이후, 군승이 배치되지 않은 국군고양병원, 육군 제1공병여단, 제2기갑여단 등에서 법사 활동에 전력하였고, 현재 육군 제3군수지원사령부의 민간인 성직자로 제8350부대 안국사 지도법사로 활동하고 있는 군불교 전문가다.

특히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지명 사전>(2011. 불광출판사)을 저술해 도로명주소법 시행으로 불교지명이 말살되는 문제를 지적,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사장 취임식은 오는 2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정릉 삼보정사에서 개최된다. 노덕현 기자

“위법망구 지중함 잇은 적 없다”

<부산불교100년사> 펴내는 현익채 前 금정중 교장



대불전에서 재가 활동 시작해 45년 동안 걸은 '전법의 길' 답아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은 "미래 전법 밝히는 등불 될 것"

인인 된 전 관음선행장학회 이사장 정금강 행 보살의 업적을 추모하고 그의 평소 유지를 받들기 위해 아들 박익민 부산대 교수, 손녀 사위 노봉호 동명대학교 교수 등 가족들의 발원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는 1969년 부산대학교 대불련 활동을 시작해 부산지부장을 지냈고, 금정중학교 교장, 부산불교총합회 회장 등 다방면의 활동을 실천해 온 부산지역의 대표적 재가 활동가다.

<부산불교총합> <부산불교계 인명록> <간주린 부산불교50년사>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40년사> <금정중학교 100년사> 등 20여권의 저서를 편찬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최초의 어린이법회인 법륜불교어린이회, 부산교육경영지 불자회 등 손수 창립한 단체만 10여 개 이상 일 정도로 왕성한 활약을 펼쳐 왔다. 그야말로 부산불교계의 산증인인 셈이다.

이런 그에게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사업>이 주어졌고, 마침내 오는 2월이면 출판 기념회가 개최된다. 한때 위암 선고를 받고 위절제 수술까지 받은 그는 "오장육부가 성치 않으나 보양삼매론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좋아한다. 하지만 불자로서 위법망구의 지중함을 잇은 적이 없다"며 "부산불교 100년사 발간의 의의는 단순한 과거의 나열에 있지 않다. 향후 10년, 미래 100년 전법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신행단체 조직하고 역량 강화 나서”

김봉래 BBS바라밀회 회장(BBS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불교방송이 2014년 신행단체 바라밀회를 조직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나선다. 이는 직원들이 신행을 구심점으로 삼아 불교언론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불교방송 김봉래 전법후원국장은 "개국 25년이 되는 올해 불교방송 바라밀회가 출범한 것은 불자연륜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불교방송 직원들의 신행이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전한다. 또한 각 언론사 불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 언론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키워나간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불교방송 국장과 부장 등 간부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직원들까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바라밀회가 경영진의 적극적인 격려 속에 출발하게 된 것은 라디오 매체로 출발했던 불교방송이 TV를 통한 영상포교라는 새로운 과제를 성공리에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을 일신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자기정체성을 보다 확고히 하고 불합종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분간 바라밀회는 회칙규정 창립법회



개최 등은 물론 언론사불자연합회 활동 동참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여의도 포교원에서 열리고 있는 언불련 법회를 통해 언론사 불자들 간의 친목 도모와 역량 강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언불련이 조계종 포교원에 신도단체로 등록된 만큼 포교원과의 연계활동도 함께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한양대 선지식동문회 책가방 기금 후원

한양대 불교학생회 선지식동문회(회장 박정환)는 1월 25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자비나눔기금 100만 원을 기부했다.

박정환 회장은 "아름다운동행의 기금에 후원금을 보태 아이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국내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2월 6일 오전 11시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책가방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선지식동문회는 300여 명의 선후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전달식에는 10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법안정사, '고승 초청 법회'



서울 목동 법안정사(회주 효경)는 1월 24일 관음재일을 맞아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을 법사로 '고승 초청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약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됐다.

도문 스님은 법문으로 "계로서 스승을 삼고 사범처에 의지하여, 인연법 근본법에 충실하라"며 "수행정진을 통해 요의(要意)인 미묘법을 통달해 직지인심 견성성불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 정토회 합창단(반주 백지인, 이종창 장정운·손희경) 단원들이 '운겨레의 노래'와 '찬불송' 음성공양을 해 법회를 장엄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日조동종 총립대와 협약



동국대 김희옥 총장은 1월 23일 일본 아이치가쿠인대학의 오노 히데토(大野 榮人) 학장 등 세 명의 접견단과 간담을 갖고, 양 교간 상호 학술교류협정 체결 및 실질 교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1876년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설립한 아이치가쿠인대학은 △문학부 △법학부 △종합정책학부 △경영학부 △상학부 △심신과학부 △약학부 △치학부 등 8개 학부에 약 1만 2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종합사립대학이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故백남준 8주기 추모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故 백남준 선생의 8주기 추모제가 1월 29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됐다.

추모제는 불교식 천도제 형식으로 열렸으며 봉은사 스님들과 신도, 백스튜디오 도로시남 대표, 유가족과 친지 등이 참석해 헌향과 헌화, 천도식을 진행했다.

독일에서 스승인 존 케이지를 만나 불교와의 인연을 맺은 고(故) 백남준 선생은 생전 불교적 사상을 내포한 '파란 부처', 'TV 부처'와 '테크니컬 부처'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또한 서울 봉은사는 백남준 선생이 타계한 직후인 2006년 3월 49재를 앞두고 경내 법왕루에 고인의 유해를 안치하고, 미공개 유작 '엄마'를 전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연으로 봉은사는 2007년부터 매년 1월 기일을 맞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